

입국장 면세점, 5월 31일 ‘첫 선’ 구매한도는 미화 600달러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SM·엔타스 2곳 선정

오는 5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로,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영광은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에 돌아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3월 29일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허심사 위원회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없애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2,40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입국장 면세점 제도의 도입으로 2020년 총 730억원의 매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으며, 직·간접적으로 582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직접고용 : 233명, 간접고용 : 349명)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특허심사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이었으며,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2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개장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기타 품목으로 구성했으며,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미화 600달러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를 없애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 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감시 강화에 따른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